

## 그녀의 모빌리티 Her Mobility (2022-)

유명민 Myungmin Liu

## 편지(letter)와 글자(letter)

나는 영국 런던에 와있고, 한국을 떠나기 전 가까운 지인들 몇몇은 나에게 편지를 남겨주었다. 나에게 남겨진 몇 장의 편지들을 다시 펼치면, 편지에 쓰인 이름들, 편지의 호명과 맺음말을 지우더라도 나는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들의 필체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문자에 다가가 그것을 독해하기도 전에 벌어지는 일이다. 각각은 너무 고유하고 익숙해서 잠시동안 나를 안정시킨다.

친밀한 사람들의 필체는 그들의 얼굴이나 목소리처럼 하나의 정체성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다하게 코드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문자이지만 동시에 이미지, 분위기 혹은 움직임이며

코드 안의 코드이거나 코드라고 불리기 애매한 것이다.

그것은 이미지이지만 정해진 모양은 없다. 종이 위를 흐르는 모양새는 글을 쓰는 당사자의 의지와도 어찌면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혹은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내가 알아볼 수 없는 백만 가지의 형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것은 그들의 얼굴이나 목소리보다도 빠르고 쉽게 나를 속일 수도 있고 그만큼 투명하다.

그건 정해진 이름도 아니고 성별도 아니고 자본의 흐름에 따라 흐르는 신체나(내가 영국에 와있는 것과 같은) 지성의 모양(체)도 아닌 - 이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마주침이다.

---

<sup>1</sup> 원하는 시간 대에 원하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언제나 불균질적으로 이루어진다.

## Letter and letter

I am currently in London, having received letters from several close acquaintances before leaving Korea. Upon reopening some of the letters here, I can identify the sender of each letter by their handwriting alone. It is possible even if the names in the letter have been erased, and regardless of the written messages.

Their handwriting is distinctive and recognizable. This uniqueness and familiar shape even brings a moment of relief. The handwriting of those close to me is as much a part of their identity as their faces and voices.

However, handwriting cannot be regarded as strictly categorized. It is a letter, but it is also an image, a vibe, or a movement. It is a code within a code, or even too ambiguous to call it a code. Handwriting is an image, but there is no fixed shape. The flow of the pen on the paper may not be directly related to the writer's intention or may take on a million forms with the intention to fool the reader. It is rather pure.

It is not a given name, nor a gender, nor a physical entity that flows within the flow of capital (like me being in the UK<sup>2</sup>), nor is it a form of intelligence - it is a moment of encounter that reminds me of all these.

---

<sup>2</sup> The ability to move to the desired space at the desired time is not guaranteed uniformly to everyone and is always unevenly distributed.

## 어크로스더 오션

10월이 되면 영국 동남부 지역의 바다를 찾아갈 것이다.

가기 전 구글 맵에 해당 지역과 예약한 숙소의 위치를 핀으로 지정해두었다. 그러다 문득 런던의 대륙을 한눈으로 내려다 보고 싶은 무의식적이고 위계적인 찰나의 욕망으로 인해 손가락으로 지도를 축소했다.

와중에 바다 건너편의 대륙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 찍혀 있는 또다른 핀이 눈에 들어왔다. 지도 상에서는 거의 동일한 위도를 가진 두개의 점- 십진수 52.3692012, 1.7056182와 십진수 52.3742865, 4.5226889 - 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하나는 3년 전에 내가 다녀왔던, 하나는 내가 2주 후에 다녀올 공간이 되었다.

현재 내가 발 딛고 있는 영국 땅을 중심으로 바다 건너편에 위치한 대륙은 네덜란드의 땅으로, 내가 Haarlem 근처에 머물 당시 숙소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바닷가였다. 그곳의 해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대지의 표면에 있는 가벼운 입자의 모래 알갱이들이 땅거미 지듯 땅을 거슬러 대륙 안 쪽으로 불어오는 모습을 선명히 볼 수 있었다.

한달 후에 방문할 곳은 Wrentham 지역의 해변가로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 소설에 등장하는 지역이다. 사실 그 연유로 하필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어찌다 나는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때 네덜란드에 찾아갔고 그의 책을 읽고 난 후에 이 곳을 고르게 되었을까. 그렇게 바다에 가게 되면 닿을 수 없는 건너편의 해안선과 삼년 전의 나를 떠올릴 수 밖에 없게 될까. 이곳의 바다는 나의 시야와 평행한, 수직적이고 납작한 이미지가 아닌 수평선을 추월하여 그 너머의 지역으로 향하는 기억 속의 이미지와 겹칠 것이다.

라고 나는 상상하기 시작한다.

상징적 우연으로 인해 가장된 관계의 성립 위에서 나는 대상을 과거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누군가에게는 한탄스러운 일이다. 그치만 나는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혹은 처음처럼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본 사람이던가? 나의 의식에 걸리적거리는 이 우연의 일치가 어떤 현기증을 유발할 수가 있나? 나는 지금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마음으로 그곳에 갈 준비를 조금씩 하는 중이다. 캠코더 용 sd 카드를 구매하고 장화 대신에 신을 수 있는 부츠 한켠레를 샀다. 나는 꽤 진지하게 가방 속에 무엇을 챙겨가야 할지, 그날 점심과 저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몇시쯤에 해안가로 걸어가면 좋을 지를 틈틈이 생각한다. 모든 것을 뜻대로 실행하고자 했을 때 내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기이한 틈새 또한 생각하면서.

바다는 정해진 형체가 없지만 그것이 무한 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유동하는 체라고 생각한다면, 혹은 조금 더 기하학적으로 두개의 대륙을 사이에 두고 끼워 맞춰진, 그러나 매순간 찌그러지는 직육면체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나는 그것들 중의 일부의 면을 두가지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에서는 내가 그 바다를 보았다고 생각했고, Wrentham에 찾아갔을 때는 두 지역의 바닷가 이름을 돌아가며 읊었다.

두 차례의 만남이 주어지고 나니 그것과 나는 무한번, 무한대의 각도에서 마주칠 수 있는 물질이 되었고 그곳에 투사될 수 있는 의미는 그와 반비례하게 작아지고 있었다.

Wrentham과 Haarlem의 해변가에는 해변과 인접한 모래 절벽, 내륙을 향해 거슬러 올라 오는 가는 모래 줄기들이 동일하게, 대칭적으로 발견됐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기이하게 Wrentham에는 죽음을 사는 나무들이 곳곳에 있었다. 그것은 바닷 바람과 모래로 인해 수분기를 다 빼앗겨 매끈한 회빛깔의 외관을 가지고 있었고 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무 기둥의 양쪽 말단은 짝짝 같

라져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세밀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절벽 면에서는 단면과 직각을 이룬 채 뺨어져 나온 -그것은 말 그대로 구십도로 돌아간 나무이다- 뿌리만이 자신이 가진 형상의 전부인 것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어떤 형태가 완고하게 박혀있었다. 근데 그것이 뿌리였던가 줄기였던가? 모래 사장에 놓여 있던 나무들은 그것의 줄기와 기둥과 뿌리가 모래를 사이에 두고 모습을 드러냈다가 감추고 다시 드러내는 방식으로 비/가시화의 곡선을 타고 있었고 모든 것은 기이하게 구체적이고 우아했다. 그들은 인간인 나와 더이상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나누는 생명체는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모래와의 변형과 움직임을 공유하는 체體가 있었다. 생이 죽음에 비해 활기있고 충만한 것은 아니기에, 그것을 살았다고 죽었다고 불러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나무에게도, 모래에게도 할당된 것이 아니었고 나무와 모래와 바람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이었다.

이를 더욱 분명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Wrentham에 도착한 첫날은 네시가량 숙소에 도착해 곧장 바닷가로 나섰고 다섯시가 조금 넘어서야 해변에 도착했다. 어둠이 등 뒤에서 빠른 속도로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다를 활보했다. 어두워질 때를 대비해 해변가의 출입구를 알아볼 수 있는 가늠표가 될 만한 것을 물색하던 중, 근처에 꽃혀있던 한 나무-나무 줄기의 끝부분이 아주 짙고 검게 타있고 길이는 내 키 정도 되어 보이는-를 발견했다. 그를 지표삼아 해안가를 돌아다니다가 숙소로 돌아왔고 그 날은 모래 절벽 근처에 놓인 폐 병커와 일몰 직전에 수평선 너머로 뜬 무지개 정도를 보았다. 첫날 나의 시야에는 앞서 언급한 생생한 나무들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것들은 다음날 아침에 같은 출입구로 들어가 반대편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면서 목도한 광경이었다.

그렇게 둘째 날 오전에 마주친 풍광의 모습은 강렬했고 황홀함에 젖어 몇시간 산책을 하다가 고속버스 시간을 확인하고 다시 바닷가의 출입구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어제 저녁의 그 지표 나무를 한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출구를 지나쳐 반대편 해안가를 따라 조금 더 걸어 들어갔다. 그런데 그 나무는 간밤에 쓰러져 검게 탄 줄기의 끝이 더 이상 하늘을 향하지 않고 모래에 박혀있었고 줄기의 중심부가 약간 휘어진 채로 얇은 포물선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질 동안 봐온 나무들이 나의 생 보다는 훨씬 오래 그러한 모양으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곡선으로, 그러한 기울기로, 그러한 타들어가는 삼입으로. 그러나 그들에게 원래 그러한 모양이라는 것은 없었고, 오늘 누워있던 모든 나무들이 사실 어제는 우뚝 서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오늘 모래 속에 모습을 감추고 있던 몸은 어제는 자신의 내장까지 뒤집어 드러내고 있었고 그것들은 너무 끊임없이 일시적으로 생을 보였다.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왜 건너편의 해변가를 먼저 다녀왔는지, 왜 끊임없이 이동하고 움직이는지. 그러한 왜는 모든 것의 지속 가운데 마주침의 행위이지 더이상 단순한 질문이나 답변이 아닌 게 되었다. 끊이지 않고 숨을 쉬고 끊이지 않고 죽지 않고 끊이지 않고 움직이는 가운데 잠시간의 정지인 것이다.

이틀에 걸쳐 하루에 다섯시간씩 쉼 없이 움직였다. 걷고 또 걸어서 신체를 이동하는 행위는 새로운 대지와 대양을 발견하는 일이 아니라 초단위의 시각적 사후성이 파노라마처럼 끊임없이 이어지고 겹치는 지속의 경험이었다. 내가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대상들 사이에 있었다. 나무와 모래 사이에, 대지와 대양 사이에, 걷기와 멈춤 사이에, 3년 전과 오늘 사이에.

## Across the Ocean

In October, I will be visiting the southeastern coast of England.

Prior to my trip, I used Google Maps to pin the location of my accommodation and the area I planned to visit. While doing so, due to a subconscious and hierarchical desire to look down the continent of London at a glance from above, I zoomed out the map with my fingers. As I did, I noticed another pinned location across the sea with an almost identical latitude of 52.3692012, 1.7056182(DD) and 52.3742865, 4.5226889(DD) - with the sea in between them. One of which was a space I visited three years ago, and the other was a space I would visit in two weeks.

The continent located across the sea was the Netherlands, and the beach there was within walking distance from the accommodation where I stayed near Haarlem. The beach there had a strong wind, which blew the light particles of sand inland like a dusk.

The place I will be visiting in a month is the beach area of Wrentham, which is featured in W.G Sebald's novel "The Rings of Saturn." In fact, that's why I have chosen to visit that place specifically. It makes me wonder how I ended up in Haarlem when I didn't know much about him, yet I chose Wrentham after reading his book. When I get to the sea, will I be reminded of the coastline beyond reach, along with my past self from three years ago? The sea here will overlap with the image from my memory, which is not a vertical and flat image parallel to my line of sight, but a horizontal line that exceeds it and points to the area beyond -

- I start to imagine.

On the establishment of a presupposed relationship due to a symbolic coincidence, one might say that I will see the object through the eyes of the past. This may be a regrettable occurrence for some, but have I ever felt what it's like to see something as it is, or as I did the first time? Could this dizzying coincidence that tinkers in my consciousness cause any discomfort? I am preparing to go there with a mind that is neither happy nor sad. I purchased an SD card for my camcorder and a pair of boots in case of rain. I am quite seriously considering what to pack in my bag, how to manage lunch and dinner for the day, and when the best time to walk to the beach would be. I am also thinking about the strange crevices I might encounter while trying to execute everything according to the plan.

If we think of the sea as a flowing figure made up of an infinite number of surfaces without a fixed shape, or if we imagine it as a cuboid that is squeezed every moment, wedged between two continents, I could observe some of its surfaces from two different angles. In the Netherlands, I thought I saw the sea, and when in Wrentham, I took turns reciting the names of the two beaches. After the two encounters, the sea and I became a substance that could be viewed from an infinite number of angles, and the lack of fixed representation was growing proportionally.

In the beaches of Wrentham and Haarlem, the adjacent sand cliffs and thin sand stems that rose up towards the inland were symmetrically and identically found. Much more strangely, there were trees scattered all around Wrentham that appeared vibrantly dead. They had a smooth, shiny appearance with a bleached gray color, as they were deprived of all moisture by the sea breeze and sand. Their trunk ends on both sides of the tree column were split so finely that it was impossible for anyone to imitate their delicate shape. On the cliff face, there was a certain form that stubbornly showed its appearance, as if the roots alone were the entirety of its shape, stretching out at right angles to the cross-section; literally a tree turned ninety degrees. But was it the root or the stem? The trees lying on the sand beach revealed their stems, trunk, and roots between the sand, hiding and revealing them in a manner that followed the curve of non/visualization. Everything was bizarrely specific and elegant. They were no longer living organisms that shared oxygen and carbon dioxide with me as a human, but there was a corporeality that shared transformation and movement with the sand. Since life is not necessarily conceived more lively and full than death, I couldn't tell whether they were dead or alive, but there was power there. Which wasn't something assigned to the trees or the sand, but rather existing between the trees, sand, and wind.

One incident made this even clearer. On the first day in Wrentham, I arrived at my accommodation around 4 o'clock and headed straight to the beach, reaching the shore a little after 5 o'clock. As darkness was rushing in behind me, I searched for a thing that could serve as a landmark to guide me back to the exit in case it gets too dark. I stumbled upon a nearby tree with a burned black trunk that was about my height. Using the burned tree trunk as my reference point, I frantically wandered the coastline for hours before finally returning to the accommodation. That afternoon, I discovered a deserted bunker near the sand cliff and saw a rainbow rising beyond the horizon just before sunset. The vivid trees that I mentioned above were the scenes discovered the next morning as I walked in the opposite direction through the same entrance.

The scenery that I encountered on the second morning was intense. After walking for a few hours in rapture, I headed back to the entrance to catch an express bus on time. Before leaving, I walked a little further along the opposite coast, passing the exit, to check once again the landmark tree from the previous night. When I found the tree, it had fallen overnight. The end of its burned black stem was no longer pointing towards the sky but buried in the sand, and the center of the stem was slightly curved in a shallow arc shape. I imagined that the trees I had seen today might have existed in such shapes for much longer than my life; with such curves, slopes, and flashing insertions. Yet, they didn't originally have such shapes, and all the trees that were now lying on the ground might have been standing straight the day before. The bodies hidden in the sand today were fully exposed yesterday, exhibiting their innards. They seemed to possess too much vigor for something so transient and endless.

Why did I come here? Why did I first visit the beach on the opposite side? Why am I constantly moving? Such "whys" have become acts of confrontation amidst everything that persists, no longer

a mere question or a statement. It is a momentary pause amidst constant breathing, constant undying, and constant movement.

For two days, I moved for five hours without a rest each day. The act of walking and moving my body continuously was not about discovering new lands and oceans, but rather a prolonged experience of duration that created a panorama effect, with each passing moment leaving a visual after-effect. Everything I saw was in between the objects: between the trees and the sand, between the land and the ocean, between walking and stopping, between three years ago and today.



## 산책자들의 밤의 산책

카프카의 단편 “갑작스러운 산책”은 집에 머무는 것이, 잠자리에 드는 것이 당연한 순간에 허벅지가 저리게 몸을 박차고 밤 산책을 나가려는 다짐의 순간을 묘사한다. 불쾌감, 욕망, 강렬함의 메세지. 마치 가족을 놀래키고 혹은 배반하고, 벗어나는, 환복을 해야 하는, 소음을 일으켜야 하는, 찬바람을 맞아야 하는. 그러나 그 남자가 대문을 열고 나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괜찮아진다. 어느 곳을 걸어도 그는 생경함을 맞닥뜨리며 탈출의 자유를 느낄 것이다. 그가 산책을 나간 사이 그러한 갑작스러움을 극대화 시켜줄 그의 친구도 우연하게 서로의 안부를 묻기 위해 밤 시간에 거리를 확보한다. 위협을 느끼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밤 산책은 누구의 것인가? 나는 왜 사자들의 밤 산책을 묘사한 글을 보며 이동 충동과 동시에 삶의 위협을, 살인의 현장을, 배회의 사후를 분열적으로 동시에 떠올려야 할까.

## Night Walk of Strollers

Kafka's short piece "The Sudden Walk" describes the moment of making a decision to leave the house at night for a walk when staying at home and going to bed is expected. A message of discomfort, desire, and intensity. Like surprising the family or even betraying them, escaping, getting changed, making noises, or facing the cold wind.

However, once the protagonist opens the door and steps outside, everything becomes okay. Wherever he walks, he will encounter vitality and feel the freedom of escaping. His friend, who will enhance this suddenness, will also roam the streets at night, perhaps coincidentally asking about each other's well-being.

But whose night walk is it that doesn't feel threatened or afraid? Why should one might have to simultaneously think of the kinetic impulse together with the threat of life, the scene of murder, and the aftermath of wandering while reading a story about the night walk of strollers?

## Labyrinth Performance (2023)

이곳에서 실행자가 누구일까?  
순수한 명상의 행위에 대해 의심하고 있니?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개인의 건강을 다스린다는 것.  
그것은 지구의 스케일, 사람들이 점유하는 공간의 크기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너는 사각형 위를 걷지만 사각형의 모양으로 걷지도 않는다.  
나와 너는 중심부를 찾아가지만 그 중심의 도달 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보다 실은 그것은 중심부가 아니다.  
그건 너와 내가 선 바닥의 중심도 아니고 우리는 접촉하지도 않는다.  
개인의 존재를 선언한다는 것은  
항법의 불안감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것에 올라타있다. 불안정하고 조각나있고 움직이는 무언가에.  
이것은 더 큰 사건에 대한 청사진일까?  
너의 의도는 이 패턴을 따라가는 것인지  
우리는 언제나 움직이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

Who is the executor here?  
Are you skeptical about the act of pure meditation?  
A neo-liberal way of looking after your health.  
It may be a problem of the scale of the Earth, or the size of the space occupied by people.  
You walk on a square, but you don't walk in the shape of a square.  
You and I go to the center, but nothing will happen at the end of reaching the center.  
In fact, it's not the center.  
It's not the core of our ground nor a point which we are in contact.  
Manifesting the presence of an individual is an  
Anxiety of navigation  
We are always on something. On an unstable, fragmentary, and moving ground.  
Is this a blueprint for bigger situation?  
Is your intention to follow this pattern?  
Are the bodies always moving?  
To where do they move?